

京城普春醫院治療患者統計記錄 考察

차웅석, 이정화¹, 안상우¹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¹한국한의학연구원

Seoul Bochun Medical Clinic Examined Patient Statistical Data

Cha WungSeok, Lee JeongHwa¹, Ahn SangWoo¹

Dept. Oriental Medicine of KyungHee University, ¹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Seoul Bochun Medical Clinic Examined Patient Table' is a statistical data that Kim Young-Hoon [1882-1974] put together himself. A total of 59353 cases from 1914 to 1935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year and month of examination, and gender. Of the cases 26497 (≈45%) were women and the remaining 32856 (≈55%) cases were men. The most frequent disease examined was cold, followed by diarrhea and stomachache. Of the 639 different kinds of diseases ever examined, 71 had occurred on more than 100 occasions. The percentage that these 71 diseases occupies is an overwhelming 88.75%.

Keyword : Bochun medical clinic, examined patient table, medical chart,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im Young-Hun, cheong gang

I. 서론

경성보춘의원은 한의사 金永勳(號 晴崗, 1882-1974)의 처음 연 의원이며 1909년에 개원하였고 서울 종로 낙원동에 위치하였다. 김영훈 선생은 개인적인 내력보다는 『晴崗醫鑑』으로 더 많이 알려진, 한국한의학의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김영훈 선생은 1882년 4월 江華島에서 출생하여 1974년 7월 향년 93세의 일기로 작고 하였다. 1904년에 同濟醫學校 교수를 시작으로 1924년에는 학술단체 東西醫學研究會결성, 1937년 京畿道立醫生講習所 개소 등 일제강점기 당시 한의학부흥에 앞장섰고 해방 후에는 舊王宮 名譽典醫,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 서울한의과대학(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전신)의 명예학장 등을 지내다가 1974년 7월 향년 93세의 일기로 작고하였으며 저서로는 『壽世玄書』가 있지만 출간되지는 않았고 遺稿로는 제자 이종형이 그의 醫案을 모아 정리한 『청강의감』이 있다.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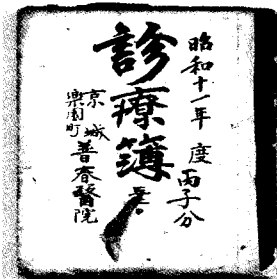
김영훈 선생은 1907년 동제의학교가 폐교된 이후 1909년 봄에 현재의 낙원동 탑골공원 뒤편에 普春醫院을 개업하고 진료를 시작하였다. 김영훈선생은 개업초기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꾸준히 남겼는데 자신이 쓴 처방전을 모으고 그것을 토대로 매일매일 진료부를 작성하였다. 1914년 4월부터 시작하는 그의 기록은 1974년 1월 15일까지 이어진다. 김영훈 선생은 그해 7월 작고하였다. 그의 수제자였던 이종형도 김영훈 선생의 유고인 『청강의감』을 편찬하면서 서문에서 “... 선생은 평소의 임상진료실적들을 철저히 기록하여 60년간 개업의 임상실적들을 빠짐없이 보존하여 왔으며 ...”⁴⁾

✉ 접수 ▶ 2007년 11월 8일 수정 ▶ 2007년 12월 3일 채택 ▶ 2007년 12월 18일
✉ 교신처 ▶ 안상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042-868-9442 Fax 042-863-9463 E-mail answer@kiom.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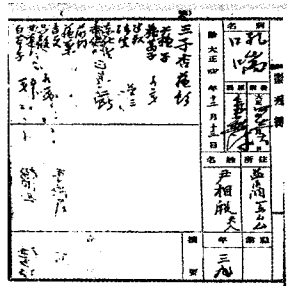
1) 李鐘馨 編, 『晴崗醫鑑』, 서울·成輔社, 1990.
2) 韓大熙 編, 『大漢韓醫師協會四十年史』, 서울·大漢韓醫師協會, 1989.
3) 鄭源熙 著, 『素軒鄭源熙遺稿集 解放後漢醫學 발자취』, 서울·玄凡社, 1988.

라고 기술하였다. 경성보춘의원 치료환자통계표의 기록은 1914년 4월로 시작하고 있다. 진료는 1909년에 시작했겠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기록과 보존작업은 1914년부터 시작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의 진료기록은 크게 ‘處方箋’ 과 ‘診療簿’ 로 나뉘며 이번에 발굴된 京城普春醫院治療患者統計表까지 해서 3종의 본인의 진료기록이 현존하며 청강처방전과 진료부의 내용은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에서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⁵⁾



<그림 1> 청강진료부 표지



<그림 2> 청강진료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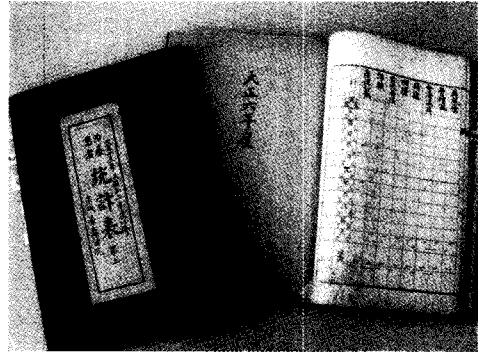


<그림 3> 청강처방전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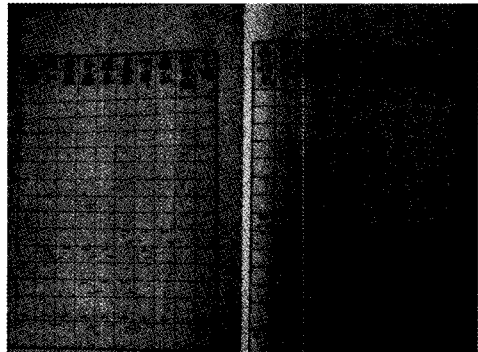


<그림 4> 청강처방전의 내용

昭和二年度以降 治療患者 統計表 第二 京城普春醫院’ 이란 이름의 표지가 각각 붙은 2권의 통계표는 1914년부터 1935년까지 진료한 환자들을 증후별로 각각 남녀의 구분을 두어 정리하였고 총 59353건의 내원환자를 778종의 증후별로 정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그의 호를 따서 晴崗通計表 1권, 2권이라고 한다. 통칭하여 ‘晴崗通計表’ 라고 한다.



<그림 5> 晴崗統計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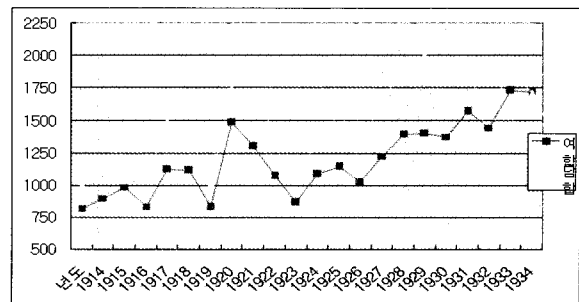
<그림 6> 晴崗統計表 내부

II. 본 론

1. 자료개요

‘京城普春醫院治療患者統計表’ 는 김영훈이 직접 작성한 통계자료이다. 1914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 종로에서 개원한 金永勳(號 晴崗, 1882-1974)은 그의 진료기록을 정리하여 1914년부터 1935년까지의 진료기록을 통계표로 작성하여 두 권의 책으로 엮었다. 이것을 장자인 金琦洙가 보관해오다가 1999년 관련 자료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기증하면서 같이 보내온 자료이다. ‘大正三年度以降 治療患者 統計表 第一 京城普春醫院’ 과 ‘大正十五年及

2. 자료의 통계수치 설명



<그림 7> 청강통계표 남녀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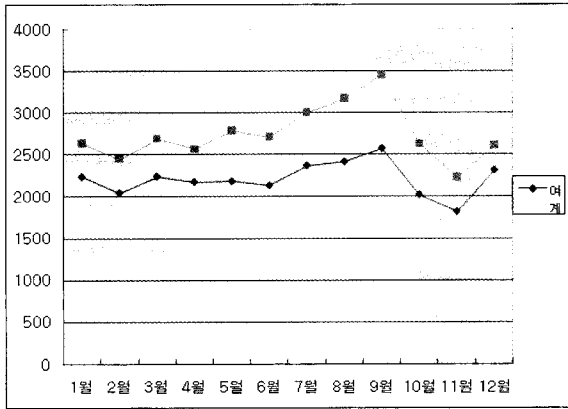
1) 기본통계

1914년 4월부터 시작하는 이 기록은 그해 1826건을 진

4) 李鐘馨 編, 『晴崗醫鑑』, 서울:成輔社, 1990:10.

5)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

료하였고 이듬해는 2029건으로 증가하였으며 기록의 마지막해인 1935년에는 3429건으로 증가하였다. 내원환자의 남녀분포는 대체로 남자가 많으며 1935년에는 여자 1718건 남자 1711건으로 여자가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8> 월별 내원환자분포

월별분포를 살펴보면 9월의 내원환자의 수가 가장 많다. 이것은 총 진료 건수중에 感傷가 차지하는 건수가 10606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환자들이 주로 9월의 환절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설사를 동반하는 유행성질병도 이 시기에 유행하는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9월의 환자수는 다른 달의 환자수보다 많고 11월에 감소했던 환자가 12월에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감모의 환자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 청강통계표에 기재된 병명

청강통계표에 수록된 병명은 20년이라는 시차 등의 변수로 인해 초기기록병명과 후기기록병명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표1 참조] 이런 변수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작업과정을 거쳤다.

1차 보정작업 : 1차 보정작업은 원자료의 병명표기를 膿, 疔, 疔, 疔같은 동일병명의 다른 표기를 하나로 통일하여 총 778개의 병증항목을 추출하였다.

2차 보정작업 : 1차 보정작업 결과로 추출한 778개의 병증항목에서 동일병명으로 추정되는 혹은 동일병증군으로 묶어도 무방한 것을 하나로 묶는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한의학적인 병증분류에서 동일증후군으로 인정되는 것을 위주로 하되, 청강통계표에서 청강 김영훈이 의식적으로 다른 병증군으로 분류할 의향이 없었던 것을 주로 하였다. 즉 표 1에서처럼 객혈, 객혈토혈, 객혈토혈수혈해혈타혈, 객혈해혈, 등은 년도별로 병증분류항목이 바뀌지만 같은 해에 겹치지 않는 시기 때문에 동일병증군으로 묶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병증군의 데이터 값을 합산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두 개의 병증군임에도 불구하고 한쪽의 데이터 값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경우이다. 데이터 값이 비등한 경우는 유사한 병증군이 의심되었다더라도 합산하지 않았다. 데이터 값을 합산하여 처리한 경우는 다음 '2차 보정작업 세부과정'에서 표기하였다.

1) 2차 보정작업 세부과정

각기, 건각기, 건습각기, 습각기를 하나의 각기류로 함. 1915년의 건각기 1건 습각기 6건을 합산함.

간질, 간질(심풍)을 간질류로 함.

심풍, 심풍(전질)을 심풍전질류로 함.

전광, 전광(간질)을 전광간질류로 함.

객혈, 객혈토혈, 객혈토혈수혈해혈타혈, 객혈토혈해혈수혈타혈, 객혈해혈을 객혈토혈류로함. 1914년의 수혈 6건 토혈 1건을 합산함, 1915년 객혈 10건 토혈 8건을 합산함, 1916년의 객혈 12건 토혈 4건을 합산함, 1917년의 객혈 5건 토혈 3건을 합산함. 1918년의 객혈해혈 8건 토혈 10건을 합산함, 1920년의 객혈토혈수혈해혈타혈 10건 토혈 4건을 합산함, 1921년의 객혈토혈수혈해혈타혈 11건 토혈 3건을 합산함, 1922년의 객혈해혈 3건 토혈 12건을 합산함, 1929년의 객혈토혈수혈해혈타혈 9건 토혈 1건을 합산함, 1933년의 객혈 1건 토혈 4건을 합산함, 1934년의 객혈 7건 토혈 2건을 합산함, 1920년의 객혈토혈수혈해혈타혈 10건

표 1. 청강통계표의 유사병증의 혼용에서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객혈		10	12	5																1	7	
객혈, 토혈										11	8	7	2		5	9	8	12	12			
객혈, 토혈, 수혈, 해혈, 타혈							10	11														
객혈, 토혈, 해혈, 수혈, 타혈						6																
객혈, 해혈					8				3													

토혈 4건을 합산함.

곽란, 건곽란, 건습곽란을 곽란류로 함. 1914년의 건곽란 4건을 곽란 62건과 합산함.

건선, 건습선, 습선을 건습선류로 함.

견비통풍, 견비풍, 오종비풍, 견우풍, 견비풍(수지)를 견배비수풍으로 함.

견비통, 견비배통, 견배통, 견우골통을 견배비수통으로 함. 1934년의 견배통 3건 견비통 11건을 합산함.

근위, 골위, 골위근위를 골위근위류로 함.

교장사 교장통을 교장사류로 함.

구조, 구건을 구건구조류로 함.

구미, 구창, 구창설미를 구창구미설미류로 함. 1929년 구창 1건을 구창설미4건과 합산함.

구열, 건구, 건습구역, 구역을 구역류로 함. 1927년 구열 1건 건습구역 1건을 합산함.

노백, 노백류용을 노백류용류로 함.

대하 백대하, 적백대하를 대하류로 함.

도한, 도한자한, 자한, 자한부지를 도한자한류로 함. 1914년의 자한 1건 도한 8건 을 합산함, 1915년의 자한 1건 도한 5건을 합산함, 1916년의 자한 1건 도한 1건을 합산함. 1917년의 자한부지 2건 도한 1건을 합산함. 1934년의 도한 8건 자 한5건을 합산함. 1935년의 도한 5건 자한 3건을 합산함.

면풍, 면상절풍을 면상절풍류로 함.

배통, 배척통을 배척통류로 함.

백음, 백음백탁을 백음백탁류로 함.

번위, 번위격열, 번위구토를 번위격열구토류로 함.

변비, 변비변폐를 변비류로 함. 1922년부터 변비와 변폐가 확연히 구분되어 표기됨. 1918-1921년의 변비변폐는 변비와 묶어 변비변폐류로 통합.

부인혈고, 혈고를 부인혈고류로 함.

구담, 불사식, 위약구담, 위약식소를 위약구담식소류로 함.

비식육, 비치를 비식육비치류로 함.

미액통, 액통, 비알통, 비액통을 비알액통류로 함.

산기, 산증, 산통을 산기산증류로 함.

소변변삭, 소변빈삭을 소변빈삭류로 함.

소변불리, 소변불통을 소변불리불통류로 함. 1917년의 소변불리 3건 소변불통2건을 합산함.

감병, 소아감병을 소아감병류로 함.

순옹, 순증, 순창을 순증순옹순창류로 함.

아감, 아감우치, 아감창, 아치감을 아감우치류로 함.

아치통, 아치통풍, 아치풍, 아풍을 아치통풍류로 1934년의 아치통 1건 아치풍 8건을 합산함.

어두창, 어두증을 어두증창류로 함.

오심번열, 오심번열조열을 오심번열조열류로 함.

월경부조월경불통, 월경부조를 월경부조류로 함. 월경불통을 별도의 항목설정이 되어있고 1919부터 1924년까지의 월경부조월경불통항목이 월경부조항목의 데이터 값이 없는 시기와 일치함.

위기하함, 위기허탈을 위기하함허탈류로 함.

유옹, 유옹유증을 유옹류로 1918년 1924년의 유옹유증의 데이터값은 같은 해 유옹의 데이터값이 없으므로 포함함. 유증은 별도항목임.

유음협옹과 유음을 유음협옹류로 함.

유정, 유정몽설을 유정몽설류로 함.

유주담, 유주담유주풍, 유주풍을 유주담유주풍류로 함.

육적, 육징, 육징어육적, 어육적을 육적육징어육적류로 함.

음탈, 탈음을 음탈류로 함.

음창, 음호종창을 음호종창류로 함.

이릉, 이릉중청을 이릉중청류로 함.

임경복통, 임경신체요복통, 임경신통, 임경요복신체통, 임경요복통, 임경요통급복통을 임경요복신체통류로 함.

백전풍, 자백전풍, 자전풍을 자백전풍류로 함.

장역, 장역(습병), 장역(온병)을 장역습온병류로 함.

장풍, 장풍변혈, 장풍장독을 장풍장독변혈류로 함. 1934년의 변혈 2건 장풍변혈 5건을 합산함, 1935년의 변혈 8건 장풍변혈 2건을 합산함.

정이, 정이농이를 정이농이류로 함.

주상, 주적을 주상주적류로 함.

좌우탄탄(편고), 좌우탄탄풍, 좌탄우탄풍, 좌탄풍, 우판풍, 풍비(탄탄)을 좌우탄탄풍편고류로 함. 1931년의 풍비 1건은 좌탄우탄풍 2건과 합산함. 1935년의 좌탄풍 7건 우탄풍 6건을 합산함.

중풍, 중장부풍, 중장풍, 풍의(중풍), 풍의를 중풍중장부풍류로 1921년의 풍의 1건 중장풍 1건을 합산함, 1927년의 풍의 1건 중장부풍 3건을 합산함.

치녹, 치루, 치질은 치질치루치녹류로 함. 1929년의 치녹 1건 치질 2건을 합산함.

치악중, 치악통은 치악중통류로 함.

탄산, 탄산토산은 탄산토산류로 함.

폐옹, 폐옹폐위, 폐위는 폐옹폐위류로 함. 1926년의 폐옹 2건 폐위 1건은 합산함.

포비, 포손, 포손유뇨는 포비포손유뇨류로 함.
 풍륜적중, 풍륜적동, 풍륜중동은 풍륜적중동류로 함.
 항문니충, 항문중통은 항문니충중동류로 함.
 혈루, 혈붕, 혈붕혈루는 혈붕혈루류로 함. 1918년의 혈루 1건 혈붕 6건은 합산함.
 회결, 회충은 회충회결류로 함.
 효후, 효후천급은 효후천급류로 함.
 인중, 후풍, 후풍인중은 인중후풍류로 함. 1920년의 인중 24건 후풍 8건은 합산함.
 흉격비만, 흉복비만은 흉협복비만류로 함.
 흉복지결, 흉협지결은 흉협복지결류로 함.
 삼음복통, 복통을 삼음복통류로 함.
 심흉통, 적취흉통, 흉통을 흉통으로 함.
 급경풍, 경풍, 급만경풍을 급만경풍류로 함. 1914년의 급경풍 4건 만경풍 1건은 합산함, 1916년의 급경풍 5건 만경풍 2건은 합산함, 1917년의 급경풍 11건 만경풍 3건은 합산함.
 식적열, 식적류상한을 식적류상한류로 함. 1918년의 식적열 76건 식적류상한 1건은 합산함.
 절풍, 두면절풍을 두면절풍류로 함.
 주마아감창, 주마아치감을 주마아치감창류로 함.
 흉비, 흉비통을 흉비통으로 함.
 오연병, 연병, 소아연병을 소아오연병류로 함.
 와사풍, 구안와사를 구안와사류로 함.
 우목, 우육을 우목우육류로 함.
 협중, 시협중을 시협중류로 함.

이러한 2차의 보정작업을 거친 결과 다음의 총 639종의 대표병증군이 추출되었다. 빈도수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병기된 숫자는 해당병증군의 데이터건수이다.

감모(感冒)10606, 설사(泄瀉)5213, 삼음복통류(三陰腹痛類)4789, 해수(咳嗽)3615, 장벽(腸癰)2123, 식적열(食積熱)1685, 협늑통(脇肋痛)1342, 협음상한(挾陰傷寒)1268, 허로(虛勞)1204, 흉협복비만류(胸脇腹痞滿類)1199, 비적(痞積)1065, 학질(瘡疾)859, 효후천급류(哮吼喘急類)664, 마진(癩疹)649, 흉통(胸痛)649, 인중후풍류(咽腫候風類)641, 임질(淋疾)552, 회충회결류(蛔蟲蛔厥類)515, 탈영(脫營)508, 요통(腰痛), 두현(頭眩), 부종(浮腫), 소아감병류(小兒疳病類), 두풍(頭風), 조잡(嘈雜), 정충(怔忡), 복창(腹脹), 급만경풍류(急慢驚風類), 광란류(霍亂類), 노체(勞瘵), 임경요복신체통류(臨經腰腹身體痛類), 불사식류(不思食類), 변위격일

구토류(翻胃膈噎嘔吐類), 위안통(胃脘痛), 역해(疫咳), 아침통(兒枕痛), 반진(斑疹), 식결(食厥), 각기류(脚氣類), 장역습온병류(瘴疫濕溫病類), 악조(惡阻), 벽학(癖瘡), 소아벽학(小兒癖瘡), 견배비수통(肩背臂手痛), 소변불리불통류(小便不利不通類), 변비변폐류(便秘便閉類), 객혈토혈류(咯血吐血類), 태동태루(胎動胎漏), 월경부조류(月經不調類), 혈붕혈루류(血崩血漏類), 아치통풍류(牙齒痛風類), 오심번열조열류(五心煩熱潮熱類), 비만(痞滿), 단독(丹毒), 변폐(便閉), 현유(吮乳), 불면(不眠), 상한온병(傷寒溫病), 발이(發頤), 적기(積氣), 산기산증류(疝氣疝症類), 주춘주하(注春注夏), 야제(夜啼), 도한자한류(盜汗自汗類), 장풍장독변혈류(腸風臟毒便血類), 압당(鴨漚), 대하류(帶下類), 조열(潮熱), 도포(倒胞), 난산(難產), 심풍전질류(心風癲疾類), 구창구미설미류(口瘡口糜舌糜類), 이명(耳鳴), 주상주적류(酒傷酒積類), 전후풍(纏喉風), 정이농이류(聾耳膿耳類), 소아벽학현유(小兒癖瘡吮乳), 성시(聲嘶), 탄산토산류(呑酸吐酸類), 견배비수풍(肩背臂手風), 태음적병(太陰積病), 중풍중장부풍류(中風中臟腑風類), 은진(隱疹), 자수(子嗽), 식적(食積), 류음협용류(留飲脇癰類), 적열(積熱), 경계(驚悸), 고환종(辜丸腫), 미릉골통(眉稜骨痛), 녹혈(衄血), 중서(中暑), 위기하함허탈류(胃氣下陷虛脫類), 황달(黃疸), 소아압당(小兒鴨漚), 각위(脚痠), 건망(健忘), 좌우탄탄풍편고류(左右癱瘓風偏枯類), 혈하(血瘕), 육로(辱勞), 비새(鼻塞), 안외장(眼外障), 항강(項強), 만비풍(慢脾風), 기곤무력(氣困無力), 나력(瘰癧), 하마온(蝦蟆瘟), 비좌(痺瘞), 몽유(夢遺), 산하(疝瘕), 온병(溫病), 적백탁(赤白濁), 오심(惡心), 폐옹폐위류(肺癰肺痿類), 태동(胎動), 태창(胎脹), 유옹유종류(乳癰乳腫類), 소장기통(小腸氣痛), 충임기통(衝任氣痛), 함중(頰腫), 후비(喉痺), 육적육징어육적류(肉積肉癥魚肉積類), 허번오뇌류(虛煩懊惱類), 불복수토(不服水土), 습진(濕疹), 태루(胎漏), 열입혈실(熱入血室), 치녹치루치결류(痔衄痔漏痔疾類), 간결류(癩疾類), 반장통(盤腸痛), 소갈(消渴), 절풍(癰風), 개창(疥瘡), 음양위(陰陽痿), 불임증(不妊症), 식적번위(食積翻胃), 이롱중청류(耳聾重聽類), 면중(面腫), 매핵기(梅核氣), 안혼(眼昏), 전광간질류(癲狂癩疾類), 근위골위류(筋痿骨痿類), 소변불금(小便不禁), 이옹(耳癰), 비풍(痺風), 음정(陰挺), 자백전풍류(紫白癩風流), 태양병(太陽病), 과채독(菓菜毒), 아감우치류(牙疳齲齒類), 양매창(楊梅瘡), 소양(瘙痒), 뇨백류옹류(尿白流癰類), 면상절풍(面上癰風), 에역(呃逆), 양위(陽痿), 태원불고(胎元不固), 고창(鼓脹), 구안와사(口眼窩斜), 유주담유주풍류(流注痰流注風流), 음위(陰痿), 학슬풍(鶴膝風), 두창(頭瘡), 비연(鼻淵), 중기(中氣), 과낭담(寡囊痰), 노인도

병(老人耄病), 나두창(癩頭瘡), 대구창(對口瘡), 수지마목(手指麻木), 역절풍(歷節風), 간장종대(肝臟腫大), 관격(關格), 구역류(嘔逆流), 시협종(腮頰腫), 식복(食復), 배악한(背惡寒), 사두창(蛇頭瘡), 요충(蟻蟲), 월경불통(月經不通), 유종(乳腫), 항문니충종통류(肛門蟲腫痛流), 과경불해(過經不解), 노육반정(努肉攀睛), 두면절풍(頭面瘡風), 은곡불리(隱曲不利), 전질(癩疾), 허리동계(虛里動悸), 감로(疔癩), 양옹(陽癰), 탈양(脫腸), 하감창(下疔瘡), 건습선류(乾濕癬流), 단쌍아풍(單雙癩風), 둔옹(臀癰), 리수(羸瘦), 온독(瘟毒), 요과통(腰跨痛), 음식창(陰蝕瘡), 적유풍(赤遊風), 중설(重舌), 풍륜적중통류(風輪赤腫痛流), 대장란문종(大腸關門腫), 빈저(鬢疽), 소변임력(小便淋瀝), 유즙불통(乳汁不通), 타박상(打撲傷), 탈항(脫肛), 퇴산(頰疔), 포비포손유노류(胞痺胞損遺尿流), 겸창(廉瘡), 뇌진탕(腦震蕩), 대두온(大頭瘟), 번갈(煩渴), 분자풍(粉刺風), 비구(鼻皰), 상한복증(傷寒復症), 신기통(腎氣痛), 아간치조종풍(牙齦齒槽腫風), 야열(夜熱), 장열(壯熱), 태기불안(胎氣不安), 협저(脇疽), 각지아창(腳趾丫瘡), 과채적(果菜積), 근비(筋痺), 두통(頭痛), 배척통류(背脊痛類), 섬좌(閃挫), 음저(陰疽), 이통(耳痛), 주마아치갑(走馬牙齒疳), 화상(火傷), 골조풍(骨槽風), 교장사류(攪腸沙類), 기상충흥(氣上衝胸), 상한병(傷寒病), 소아연병(小兒軟病), 유소증(乳少症), 중만(中滿), 발배(發背), 백설풍(白屑風), 부인혈고류(婦人血枯類), 심번(心煩), 위궤양(胃潰瘍), 음낭습양(陰囊濕痒), 자림(子淋), 치악종통류(齒顎腫痛類), 허천(虛喘), 흉협복지결류(胸脇腹支結類), 감상(感傷), 노자온(鷺鷥瘟), 목암(目暗), 복음(伏飲), 산육열(產褥熱), 소양병(少陽病), 아간종(牙齦腫), 안내외장(眼內外障), 안내장(眼內障), 언어건삽(言語蹇澁), 유방결핵(乳房結核), 자현(子懸), 정신단소(精神短少), 족벽(足蹇), 치태(痴呆), 격일(膈噎), 견비통풍(肩臂痛風), 관절통(關節痛), 난현풍(爛弦風), 비불문취(鼻不聞臭), 산후발열(產後發熱), 색택증(索澤症), 자종(子腫), 장조증(臟燥症), 적맥관정(赤脉寬睛), 체이(滯頤), 흉비통(胸痞痛), 각종(脚腫), 경단복행(經斷復行), 고관절통풍(股關節痛風), 기함(氣陷), 담결(痰厥), 면포창(面包瘡), 비사(鼻皰), 비알액통류(鼻頰額痛類), 비통(鼻痛), 설조(舌燥), 순옹중창류(脣癰腫瘡類), 안적중통(眼赤腫痛), 암풍(暗風), 회희(噦噫), 연훈중독(煙薰中毒), 위완비괴(胃脘痞塊), 유두과열(乳頭破裂), 음탈류(陰脫類), 음호중창류(陰戶腫脹類), 자궁암(子宮癌), 중습(中濕), 천급(喘急), 천적풍(天吊風), 치경(控瘰), 통풍(痛風), 항부결핵(項部結核), 협거풍(頰車風), 협옹(脇癰), 혼모(昏暮), 회감(蛔疳), 간적(肝積), 견갑통(肩胛痛), 결흉(結胸), 고평통(髀骨痛), 고구창(袴口

瘡), 권음상한(厥陰傷寒), 노학(勞瘡), 뇨혈(尿血), 반산(半產), 편독(便毒), 복중협작(腹中狹窄), 봉과직옹(蜂巢織癰), 부골저(附骨疽), 비만증(肥胖症), 비식육류(鼻息肉類), 비창(鼻瘡), 섬망증(譫妄症), 소편빈수(小便頻數), 신장풍(腎臟風), 로전통(顛顛痛), 아장풍(鵝掌風), 애기(噁氣), 오뇌(懊惱), 음냉(陰冷), 음부습양(陰部濕痒), 이옹합중(耳癰頰腫), 이하옹(耳下癰), 인창(咽瘡), 자간(子癰), 졸아(卒啞), 주벽(酒癖), 창만(脹滿), 청구(淸癰), 태불장(胎不長), 허번오롱류(虛煩懊惱類),環跳風(環跳風), 황수창(黃水瘡), 각근종(腳跟腫), 각근통(腳跟痛), 각슬구련(腳膝拘攣), 간옹(肝癰), 경간(驚癇), 구배(龜背), 구취(口臭), 근시(近視), 노적증(勞積症), 뇌루(腦漏), 두슬(頭風), 반위구궤(反胃嘔噦), 배강통(背強痛), 배열(背熱), 백사후풍(白痧喉風), 복서(伏暑), 복중결괴(腹中結塊), 분돈(奔豚), 비장종대(脾臟腫大), 선라침풍(旋螺尖風), 소관반산(素慣半產), 소음병(少陰病), 수완통풍(手腕痛風), 수완풍종(手腕風腫), 수족결냉(手足厥冷), 습관유산(習慣遺產), 양허청결(陽虛靑厥), 어두중창류(魚頭腫脹類), 어육적(魚肉積), 우피선(牛皮癬), 위적(胃積), 유암(乳癌), 유정몽설류(遺精夢泄類), 음어(瘡瘻), 음풍(瘡風), 장옹(腸癰), 장치(腸痔), 적취(積聚), 전간(癩癰), 전옹(癩癰), 정종(丁腫), 정창(疔瘡), 지주고(蜘蛛蟲), 청맹(靑盲), 활구풍(撮口風), 충창(蟲瘡), 탈장(脫腸), 투침지(偷鍼痣), 포궁중양(胞宮腫瘍), 풍진(風疹), 해천저(海泉疽), 현음(懸飲), 협만(脇滿), 홍사정(紅絲疔), 혼결(暈厥), 각비(脚痺), 각슬위비(脚膝痿痺), 간일성이증(看一成二症), 감열노백(疳熱尿白), 견교상(犬咬傷), 결핵(結核), 교접출혈(交接出血), 구갈(口渴), 구건구조류(口乾口燥類), 구루통(偃僕痛), 구연병(口涎病), 기창(氣脹), 내저(內疽), 노책증(怒責症), 담결흉(痰結胸), 담결류중풍(痰厥類中風), 동계(動悸), 두액한(頭額汗), 두전통(頭顛痛), 둔골통(臀骨痛), 둔풍옹(臀風癰), 마비풍(馬脾風), 망양(亡陽), 반흔(癍痕), 방광석(膀胱石), 백음백탁류(白淫白濁類), 비옹(臂癰), 상기허천(上氣虛喘), 상한온병복증(傷寒溫病復症), 선천부족(先天不足), 섬좌요통(閃挫腰痛), 소양양명합병(少陽陽明合病), 소장경열(小腸經熱), 수완마목(手腕麻木), 수지구련(手指拘攣), 수포진(水疱疹), 습온(濕癰), 습창(濕瘡), 악골종통(顎骨腫痛), 안화(眼花), 액와종(腋窩腫), 어중독(魚中毒), 오탄이물(誤吞異物), 요각냉비(腰脚冷痺), 용천정(湧泉疔), 음전(陰癩), 이옹협옹(耳癰頰癰), 자기(子氣), 작목(雀目), 전포(轉胞), 정독(疔毒), 정력불고(精力不固), 정폐증(精敗症), 제창(臍瘡), 족부종(足跗腫), 족저번저(足底胼胝), 주마감창(走馬疔瘡), 중독(中毒), 중주독(中酒毒), 천주골도(天柱骨倒), 청양불승(淸陽不升), 탈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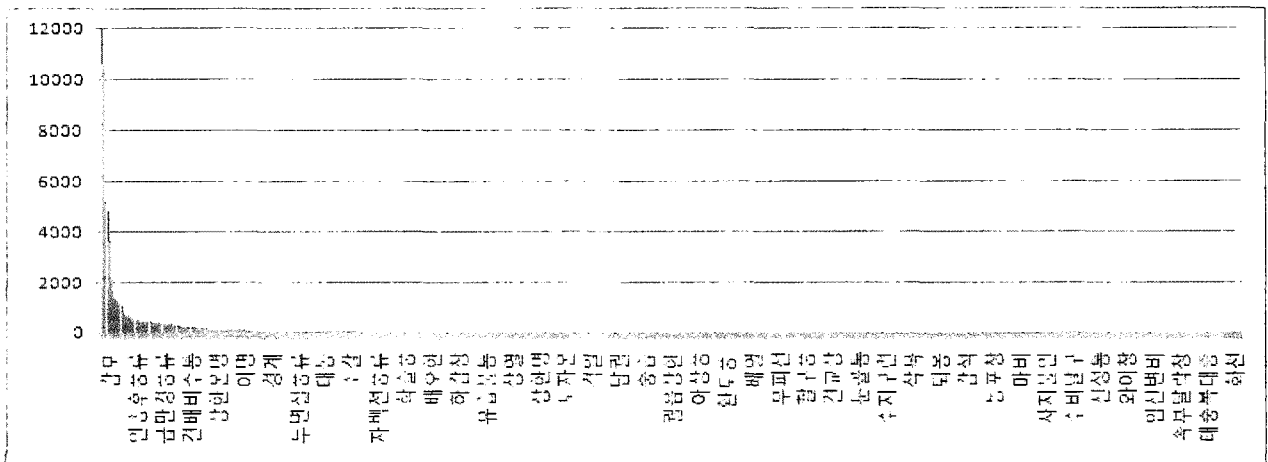
(脫血), 태수(胎瘦), 퇴옹(癩癰), 한산(寒疝), 혈림(血淋), 혈산(血疝), 회음종통(會陰腫痛), 회음파열(會陰破裂), 횡현(橫弦), 가성조달중독(苛性曹達中毒), 각근마비(脚根麻痺), 각슬산위(脚膝酸疼)

각슬위약(脚膝痿弱), 각슬통(脚膝痛), 각천전근(脚膂轉筋), 간종(肝腫), 감갑창(炭甲瘡), 감작(疔積), 객담(咯痰), 견비구급(肩臂拘急), 곡택옹(曲澤癰), 고골창(髁骨瘡), 관골통(髁骨痛), 락와풍(臑窩風), 구개식창(口蓋蝕瘡), 구금(口禁), 구순파열(口脣破裂), 귀두습진(龜頭濕疹), 기관협착(氣管狹窄), 기탈(氣脫), 내옹(內癰), 노충(勞蟲), 농포창(膿泡瘡), 뇌열(腦熱), 뇌저(腦疝), 뇌창(腦瘡), 뇌후저(腦後疝), 담석통(膽石痛), 담적(痰積), 담천(痰喘), 대변불금(大便不禁), 대양증(戴陽症), 독균중독(毒菌中毒), 독초중독(毒草中毒), 두냉증(頭冷症), 두발조백(頭髮早白), 마비(麻痺), 면피청흑(面皮靑黑), 면화창(綿花瘡), 몽압(夢壓), 미액통(眉額痛), 방광기통(膀胱氣痛), 배심일점통(背心 點痛), 비천전근(腓膂轉筋), 배협견통(背脇肩痛), 변노유실(便尿遺失), 변저(骯骯), 비관자음(悲觀自泣), 비기(肥氣), 비추저(脾樞疝), 비풍창(痺風瘡), 사승(邪祟), 사지불인(四肢不仁), 산아부육증(産兒不育症), 산후섬망(産後譫妄), 상박골탈구(上膊骨脫臼), 상조증(上槽腫), 서루창(鼠瘦瘡), 석유중독(石油中毒), 설강(舌絳), 설봉미란(舌縫糜爛), 설종(舌腫), 섭유골통(顛巖骨痛), 소변삼(小便澀), 손설(殮泄), 수결흉(水結胸), 수비관절통(手背關節痛), 수비탈구(手臂脫臼), 수산(水疝), 수완건습선(手腕乾濕癩), 수완중(手腕腫), 수장풍(手掌風), 수족마목(手足麻木), 수족지변저(手足底骯骯), 수지輝열(手指輝裂), 수화부제(水火不濟), 슬관절음저(膝關節陰疝), 슬리결핵(膝膈結核), 슬립습진(膝膈濕疹), 습벽(濕癖), 식적류중풍(食積類中風), 신설(晨泄), 로정통(顛頭痛), 신중(身重), 심균독(葷

菌毒), 심신불녕(心神不寧), 아부용독(鴉芙蓉毒), 아간출혈(牙齦出血), 아연은(鴉烟癮), 안검긴삼(眼瞼緊澁), 안검적종(眼瞼赤腫), 안섬증(眼狀疰), 안와골저(眼窩骨疝), 액한(腋汗), 양명병(陽明病), 영류(癭瘤), 응독(癭毒), 알이창(挖耳瘡), 요부증(腰俯疝), 요증(腰重), 욱풍(褥風), 우목우육류(疣目疣肉類), 위풍면종(胃風面腫), 위한복통(胃寒腹痛), 율폐(癩疔), 음경종창(陰莖腫脹), 음두종(陰頭腫), 음문응독(陰門癭毒), 음부옹(陰阜癰), 음종(陰腫), 음중통(陰中痛), 음통(陰通), 음퇴종(陰腿腫), 이중선조(耳中蟬噪), 임신변비(妊娠便秘), 자궁한습(子宮寒濕), 자리(子痢), 자학(子瘡), 작반(雀斑), 전순(繭疔), 장결윤근(腸結輪疝), 장비(腸痺), 전한(戰寒), 절두풍(節頭風), 정활(精滑), 제곡무상(啼哭無常), 조충병(線蟲病), 족건중(足繭腫), 족부질박상(足跌撲傷), 족부창(足跌瘡), 족부탈락창(足跌脫落瘡), 주관절탈구(肘關節脫臼), 주마강창(走馬疔瘡), 차훈(車瘡), 찰과상(擦過傷), 척골풍(脊骨風), 척배강(脊背強), 천축(喘促), 천주골종경(天柱骨腫硬), 촌충(寸蟲), 퇴퇴풍(槌腿風), 칠독(漆毒), 태독(胎毒), 태사복중(胎死腹中), 태음부열(太陰腑熱), 태중복대증(胎中腹帶疰), 태통(胎痛), 팔각충(八角蟲), 폐조증(肺燥症), 포의불하(胞依不下), 한열교작(寒熱交作), 항종(項腫), 해신중(解腫疰), 해역증(解痧疰), 해저현옹(海底懸癰), 허타(虛唾), 혈경과다(血經過多), 혈결(血厥), 혈해휴손(血海虧損), 혈훈(血暈), 화천(火喘), 환도저(環跳疝), 환도탈구(環跳脫臼), 회음습양(會陰濕癢), 후중성기(喉中醒氣), 후창(喉瘡), 흘역(吃疫), 흘음(吃音) 등 641종.

2) 내원환자 통계

총 내원환자 59353건을 병증별로 정리해보면 100건 상의 내원기록은 가장 많은 감모10606건을 비롯한 총 70종의



<그림 9> 총 병증군 전체분포도

② 신체 내부의 병적 변화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총칭	외감대상, 내상외감, 내외감상, 내외결상, 내외상, 내외상한
음식류	상식감한, 상식감풍/ 외감서습 내상음식, 서습상식, 서습식상, 서습상위/ 외감풍한 내상음식, 식적
노권류	외감풍상 내상노역, 외감풍한 내상노역, 불복수토
방로류	외감서풍 내상방실, 외감풍한 내상방실, 협음상한, 방실상, 방실상풍, 방실상한
칠정류	외감풍한 내상비에, 외감풍한 내상칠정
부인류	입잉허손감상풍한, 산풍, 산후감한
기혈담울류	외감풍한 내상기울, 기허/ 혈열, 혈허, 혈허상풍, 혈허상한/ 외감풍한 내상기혈, 기울양허 겸상풍한/ 외감풍습 내상혈맥, 외감풍한 내상혈맥
오장류	폐열, 신허, 풍한상발수

(4) 주요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상, 처방에 따른 병인
보구정기산	기울담화, 내상기울 외감풍한, 내상외감, 내상혈맥 외감풍한, 내외상, 내외인, 불복수토, 상식감한, 상위, 상풍, 상한, 서상, 서상풍, 서습, 서습감상, 서습담, 서습상, 서습상식, 서습상폐, 서습식상, 서습풍, 서습풍상, 서식상, 서풍, 서풍상, 서풍습상, 시기, 외감, 외감내상, 외감상, 외감풍한, 외감풍한 내상기울, 외감풍한 내상방실, 외감풍한 내상음식, 외감풍한 내상칠정, 외감풍한 내상혈맥, 외감풍한 내상음식, 외감풍한 내상칠정, 외상풍습, 외상풍한, 위한, 태양상풍, 태양상한, 폐열, 풍상, 풍상수, 풍상태양, 풍상폐, 풍서습, 풍서습상, 풍습, 풍습상, 풍열, 풍은, 풍한, 풍한사, 풍한상, 풍한상근, 풍한상발수, 풍한상영위, 풍한상폐, 한상, 혈허, 협음상한
가미보정산	감모, 내상기울 외감풍한, 내상음식 외감풍한, 내상음식 외상풍한, 내외감상, 내외상, 상서, 상식풍, 상식한, 상위, 상풍, 상풍습, 상한, 서습, 서습상, 서식상, 서풍, 서풍상, 서풍습상, 시기, 상한, 외감상한 내상음식, 외감서습 내상칠정, 외감풍습 내상혈맥, 외감풍한 내상기울, 외감풍한 내상습식, 외감풍한 내상칠정, 외감풍한 내상방실, 취주상풍, 풍상, 풍서습, 풍습, 풍한, 풍한상, 풍한상폐, 협음상한
각서정기음	불복수토, 상서, 상풍, 상한, 서상, 서상풍, 서습, 서습상, 서습상폐, 서습식상, 서습풍, 서습풍상, 서식상, 서풍, 서풍상, 서풍습, 습상, 풍상, 풍서습, 풍서습상, 풍한습상
향갈음	내상방실 외감풍한, 상풍, 상한, 서습상, 서풍, 서풍상, 시기, 외감풍한, 외감풍한 내상음식, 풍습, 풍습상, 풍한, 풍한상
화정전	내상기혈 외감풍한, 내상노역 외감풍한, 내상외감, 내상혈맥 외감풍한, 내외감상, 내외상, 방실상, 방실상풍, 방실상한, 상풍, 서상심폐, 서습상, 서풍상, 신허, 외감내상, 외감상, 외감서풍 내상방실, 외감풍상 내상노역, 외감풍한 내상기혈, 외감풍한 내상노역, 외감풍한 내상방실, 외감풍한 내상음식, 외감풍한 내상혈맥, 태양상한, 풍한, 협음상한

(5) 접근 및 해제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감모’ 라는 진단명은 의학 입문과 동의보감을 비롯한 조선 중기 종합 의서에 등장하는 ‘감모’ 라는 용어보다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의학 입문, 동의보감 등에서는 ‘감모’ 를 질환 혹은 병증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기보다는 기전을 설명하는 ‘~을 뒤어쓰다, ~영향을 받다’ 등의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러나, 청강 진료부상의 ‘감모’ 는 의학입문, 동의보감 등에 나타나는 모풍, 중한, 상풍, 상한, 서병, 습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외감 질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풍사, 한사, 서사, 습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외감 질환을 모두 감모로 표현하고 있다. 현재 쓰이고 있는 ‘감기’ 라는 용어와 유사하다.

청강 진료부상에서 ‘감모’ 라는 병명은 다양한 병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모’ 를 일으키는 상황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온전히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과 신체 내부의 병적 상황을 겸한 상태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풍, 상한 등으로 병인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며, 외감풍한 내상음식방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병증은 영향을 끼친 환경에 따라서 풍사, 한사, 서사, 습사에 의한 병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 환경 변화와 신체 내부의 병적 상황이 겸하여 나타나는 병증은 신체내부의 병적 상황에 따라서 비, 폐, 신 장부의 병적 상태를 겸한 병증과 음식, 노권, 방실과 같은 내상 상태를 겸한 병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부의 환경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병증은 주로 보구정기산을 활용하여 치료하였다. 환경 변화의 양상에 따라 처방의 구성이 변하기는 하였어도, 신체 내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구정기산을 주요 치료 처방으로 활용한다. 신체 내부의 병적 상황이 동반될 경우에는 화정전을 활용하거나, 가미보구산을 활용하였다.

종합하면, ‘감모’ 는 추위, 강한 바람, 습하거나 더운 기후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전신적인 병리 변화를 나타내는 병증이라고 규정할 수 있으며, 감모의 주요 치료 처방은 보구정기산이다.

2) 腹痛

(1) 진료 횟수

1914년-1935년까지 삼음복통은 4280회 진단, 복통은 509회 진단.

(2) 유사 진단 병명

복통, 복통/(감모), 복통/(노학), 복통/(자한), 복통/(폐로), 복통/(협음상한), 복통/(협통), 복통/아침통/식상복통/변비, 복협통, 소복통, 소음복통, 속기복통, 식적복통, 음결복통, 적기복통, 학질/(회충복통), 회결복통, 회충복통.

(3) 원인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외감류	감모, 격동상한, 삼음한습, 상한, 서상, 온병열성/ 외감내상, 외감풍습 내상음식
방로류	방실상
칠정류	비에과도상삼포
음식류	과적, 과채상, 생냉과채상위, 생냉상비위, 생냉상위, 서습식상, 서식상, 서식상위, 속식, 속식상, 속식상위, 속적, 식담, 식상, 식육상위, 식적, 식적기울, 식적담, 식적담결, 식적담음, 위상생냉, 위약상식, 위한상랭, 위한상식, 위한식상, 위한식상겸회충동, 위한식적, 위허상식, 위허식상, 유식상위, 음식상위/ 주상, 주식담, 주식상, 주식상위, 주식상위한, 주식상한, 주식적, 주적
충류	회결, 회동, 회동상식, 회동식상, 회동식상, 회동식적, 회동식적, 회동식적, 회충, 회충동, 회충상공, 상식동회, 식상동회, 식상회결, 식상회동, 식적동회, 위랭회동, 위허회결
육부류	소장한습/ 과상위기, 위약, 위한, 위한복통, 위한상화, 위허, 위허상냉/ 변비
기혈담음류	구담, 담음, 열담/ 적기, 적기충상, 적기통/ 혈허담성
부인류	경검동태, 자궁혈체, 태기불안, 태동

(4) 주요 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 상, 처방에 따른 병인
목향화위탕	구담, 기울, 변비, 생냉상위, 생냉상위, 속식, 속적, 식담, 식상, 식상동회, 식상위, 식심독, 식육상, 식적, 식적담, 식적동회, 심적, 위랭, 위상생냉, 위약상식, 위한, 위한상식, 위허상식, 위허식상, 음식상위, 적기
가미화위탕	기울식적, 기혈허손, 생냉상위, 생냉상위, 서식상, 속식, 식결, 식상, 식상동회, 식적, 식적담, 위랭, 위한
화위탕	생냉상위, 생냉상위, 식상, 식적, 식적회동, 위냉, 위랭, 위한, 위한상식, 음식상, 음식상위, 주식상, 태기불안
연결탕	상식동회, 생냉상위, 생냉상위, 식상동회, 식상회결, 식상회동, 식적, 식적동회, 식적회동, 위약상식, 위한, 위한식상겸회충동, 음식상위, 회결, 회결식상, 회동, 회동식적, 회충, 회충동, 회충상공
계강온위음	감모, 생냉상위, 생냉상위, 식상, 식상위한, 식적, 식적기울, 위한, 위한상랭, 위한상식, 위한식상, 위한식상겸회충동, 위허상식, 음식상위, 적기, 적기충상, 적기충상, 주식상

(5) 접근 및 해제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복통은 현재의 복통과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청강 진료부상의 복통 역시, 횡격막이하 서혜부 이상의 신체 전면에 나타나는 통증을 의미한다.

청강 진료부의 복통은 그 유발 원인이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은 외부의 환경변화, 음식 부적절, 소화관의 허약이다.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복통은 주로 한사에 의해 나타나며, 음식문제에 의해 나타나는 복통은 주로 식체로 인한 음식물 정체가 원인이다. 소화관의 허약에 의해 나타나는 복통은 위장이 차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감정이나 생활습관의 관리 부적절로 인해 기혈의 순환이 저해되어 나타나는 복통도 있다.

음식 문제로 인한 복통은 목향화위탕을 주요처방으로 활용했으며, 소화관의 허약에는 계강온위음을 활용하였다.

종합하면, 청강 진료부상의 복통은 현재 쓰이는 의미와 같이 복부의 통증을 의미한다. 음식 문제, 외부 환경 변화, 소화관의 허약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으며, 목향화위탕, 계강온위음을 주요처방으로 활용해 치료하였다.

3)泄瀉

(1)진료 횟수

1914년-1935년까지 제반설사는 3846회 진단, 설사는 1367회 진단.

(2) 유사 진단 병명

구리, 구사, 구사방, 설리, 설사, 습사, 습사/(감모), 습사/(열수), 습사/(장벽), 습사/(전풍), 습설, 식적설, 식적열(한사), 신설, 신활설, 열사, 熱瀉, 찬설, 체하, 한사, 한사, 한사/(감수), 한사/(압당), 한사/(양위), 한사/(오심번열), 한설, 허리, 허사, 허사, 허사/(감모), 허사변갈, 허설, 활리, 활사, 활설.

(3) 원인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음식류	파식상, 상식, 생냉상, 생냉상비, 생냉상위, 서습식상, 서식, 서식독, 서식상, 서식상위, 속식, 속식상, 속식상위, 식상, 식상위, 식상위허, 식육상, 식적, 위식한상, 위약상식, 위약식상, 위한상식, 위한식상, 유상, 유식, 유식부조, 유식상, 유식상위, 유식적, 유식적열, 음식상, 음식상위, 주상, 주식상, 주식상위, 주적
담음류	구음, 유음
외감류	복서, 상습, 서상, 서습, 서습상, 서습상위, 서풍, 습상, 중서, 풍한, 한습
육부류	위랭, 위약, 위열, 위장한, 위장허, 위한, 위허, 장냉, 장한, 장허, 중주불운, 폐로위허

(4) 주요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서, 처방에 따른 병인
거서화중탕	과식상, 복서, 생냉상, 생냉상위, 생냉상비, 생냉상위, 서기상, 서습, 서습상, 서습상식, 서습상위, 서습식면상, 서습식상, 서습식상위, 서습식적, 서식, 서식독, 서식상, 서식상위, 서풍, 속식, 속식상, 속식상위, 습서식상, 습식상, 식상, 식적, 유음, 음식상, 음식상위, 주식상위, 중서 습상위
영출전	대장허탈, 서상, 서습상, 서습상위, 서습식상, 서식상, 습상위유식결상, 식상, 식적, 식적동회, 위약, 위장허, 위장허손, 위한, 위허, 위허식상, 유상, 유식부조, 유식상, 유식상위, 유적, 음식상, 음식상위, 장위허손, 장한, 장허
목향화위탕	생냉상위, 서습상, 서습식, 서습식독, 서습식상, 서식독, 서식상, 서식상위, 서음식, 속식, 속식독, 속식장열, 속적, 식상, 식적, 식적상위, 위상생랭, 위약식상, 위장한, 위한, 위한상랭, 위한식적, 음식상, 음식상위, 장한, 주식상
화중음	생냉상위, 서식독, 서식상, 속식, 식상, 식상, 식음상, 식적, 위한, 유식, 유식상, 유식상위, 유식적, 음식상, 음식상위, 풍한
위령탕	구음, 복서, 상식, 서습, 서습상위, 서습식상, 서식상, 서식상위, 속식, 식상, 식상위, 식적, 위한, 유식상, 유식상위, 음식상위, 주식상위, 주식적

(5) 접근 및 해제

설사는 섭취한 음식물이 정상적인 소화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발생하는 대변 양상의 병리적인 변화로써, 대변에 과도한 수분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하는 병증이다.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설사의 양상만큼이나 다양하다. 설사의 원인은 한열로 대별된다. 외감 중에서 여름의 더운 기운에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상한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음식을 과식하여 발생하는 설사는 그 원인을 '열'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외감 중에서 찬 기운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회충이 장관내에 기생하였거나, 본래 위장관이 허약하여 발생하는 설사는 그 원인을 '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각의 원인들은 설사와 동반되는 특징적인 증상을 바탕으로 변증할 수 있다. 가령, 여름의 더운 기운에 적응하지 못해 나타나는 설사는 발열과 갈증이 동반되며, 음식을 잘못 먹어 나타나는 설사는 변에서 부패한 냄새가 난다.

열로 분류할 수 있는 설사는 대부분 거서화중탕을 사용하여 치료하였으며, 한으로 분류할 수 있는 설사는 영출전을 활용하였다. 음식을 잘못 먹어 발생한 설사의 경우에는 목향화위탕을 사용하여 소화기의 기능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치료하였다.

종합하면, 설사는 정상적인 소화기능이 실조되어 나타나는 수분 함량이 높은 대변을 보는 병리적인 변화로써, 한과 열로 그 원인을 대별할 수 있다. 설사 치료에 사용된 주요처방은 거서화중탕과 영출전, 목향화위탕을 들 수 있다.

4) 咳嗽

(1) 진료 횟수

1914년-1935년까지 제반해수는 2649회 진단, 신구해수는 506회 진단, 해수는 382회 진단.

(2) 유사 진단 병명

구수, 구수/효후, 구천, 구해, 기수, 기천, 노수, 노수토혈, 담수, 담천, 담해, 백일해, 백일해, 구수, 열수, 열수, 열수/ (벽학), 자수, 천수, 천행수, 천행해수, 토담노수, 폐열수혈, 한수, 해수, 해수, 해천, 해혈, 허수, 허천, 혈수.

(3) 원인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외감류	감로, 감모, 감상, 감풍, 감한, 내상혈기 외감풍한, 내외 감상, 상풍, 상한, 서감, 서상, 서상폐, 서상풍, 서습상, 서풍, 폐감, 폐감풍, 폐감풍, 폐상풍, 외감풍한, 폐허감풍, 풍습상폐, 풍열, 풍한, 풍한상, 풍한상폐
음식류	식적담
방로류	방실감풍, 방실상한
기혈담울류	기울, 담울, 담화, 어혈입폐, 열담, 울담간폐, 위허담성, 혈허담성
오장류	금수부족, 수고화염, 심화승폐, 폐신부족, 폐신허, 폐신허손, 폐신허화, 폐열, 폐열담울, 폐울, 폐허열
기타	마진유열

(4) 주요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서, 처방에 따른 병인
청폐음	감모, 마진유열, 마후유열어폐주, 상한, 심화승폐, 온병유열, 폐상풍열, 폐열, 풍열, 풍한, 풍한상, 풍한상폐
행소음	감모, 감풍, 감한, 상풍, 상한, 서상폐, 서습상, 폐감, 폐열, 풍상폐, 풍열, 풍한, 풍한상
가미금수전	금수부족, 내상기혈 외감풍한, 내상혈기 외감풍한, 내외상, 방실감풍, 심화극폐, 외감풍한 내상방실, 폐신부족, 폐신허, 폐신허, 폐신허손, 폐신허화, 폐열, 폐허, 폐허감풍, 폐허열, 혈허담성, 화승폐
행소육안전	감모, 감풍, 감한, 내외감상, 상풍, 상한, 폐감풍, 폐상풍, 폐열, 풍한
청폐탕	감상, 감풍, 비열, 상풍, 폐열, 폐화

(5) 접근 및 해제

해수는 호흡기의 과도한 배출을 특징으로 하는 병증으로써, 현재의 기침과 동일한 용어이다. 해수는 객담의 배출과 목소리 혹은 호흡음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해수를 일으키는 원인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부적절한 생활습관으로 나뉘볼 수 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적응으로 발생하는 해수는 감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부적절한 생활습관으로 발생하는 해수는 과도한 성생활이라든가, 부적절한 식습관에 의해 발생하는 해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선천적인 호흡기의 허약도 해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수는 청폐음, 행소음과 같은 처방을 활용하여 폐에 생긴 열과 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 선천적인 호흡기의 허약이나 부적절한 생활로 인한 허증 해수는 가미금수전을 활용하여 치료한다.

종합하면, 해수는 객담과 호흡음의 변화를 동반하는 호흡기의 과도한 배출을 지칭하는 병증으로써, 외부 환경에 대한 부적응과 부적절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한다. 해수 치료에 사용된 주요 처방은 청폐음, 행소음, 가미금수전을 들 수 있다.

5) 食積

(1) 진료 횟수

1914년-1935년까지 1592회 진단.

(2) 유사 진단 병명

감모/(비적), 과적, 비적, 식상, 식적, 식적류상한, 식적류한, 식적발, 식적발독, 식적발열, 식적복통, 식적설, 식적야열, 식적열, 식적열/(감모), 식적열/(한사), 식적체하, 식적통, 식적흉통, 주적, 체하, 허로/(식적열).

(3) 원인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외감류	내외상, 상풍, 서식상
음식류	산후식상, 숙식, 숙식담, 숙식담울, 숙식담음, 숙식담화, 숙식상위, 숙식화담, 식상, 식적, 유식상, 유식상위, 유적, 음식상위
칠정류	내상음식칠정기울
기혈담울류	습열, 위중습열, 한담

(4) 주요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상, 처방에 따른 병인
지련화위탕	과육독, 기울, 서습식독, 서습식상, 서식독, 서식상, 숙식, 숙식담음, 숙식담화, 숙식상위, 숙식위열, 숙식장열, 숙식적, 숙식화담, 습열담식, 습열담적, 식상, 식육독, 식적, 위열, 위중습열, 음식상, 장열, 중주불운
목향화위탕	기울, 내외상, 생녕상위, 생녕상위, 서습식, 서습식독, 서습식상, 서식독, 서식상, 서식상위, 서음식, 숙식, 숙식독, 숙식장열, 숙적, 숙적습열, 식육상위, 식적, 음식상위, 중주불운, 풍한상위
화중음	병육독, 서식독, 서식상, 숙식, 숙식상위, 식상, 식상위, 식적, 위불화, 유식상, 유식상위
목향화체탕	기울, 대장습열, 대장적열, 복서, 생녕상위, 서습상위, 서습식독, 서습식상, 서식상, 서식상위, 숙식, 숙식상, 숙식상위, 숙식장열, 숙식적, 식상, 식적, 위중숙식, 위한, 음식상위, 중주불운
향굴탕	상풍, 숙식, 숙식상위, 식상, 식적, 유식상, 유식상위, 육상, 음식상위, 한담

(5) 접근 및 해제

식적은 지금의 ‘체했다’ 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즉, 섭취한 음식이 소화, 흡수되지 못하고 머물러서 발생하는 더부룩함, 트림, 심하부위 통증 등을 포함하는 병증이다.

식적을 일으키는 원인은 소화능력의 저하와 잘못된 식생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화능력의 저하는 원래 소화기가 허약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숙식상위와 같이 대부분 기존의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소화기가 손상되어 생긴다. 서식상과 같이 부패한 음식을 섭취하였거나, 과식한 경우가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식적에 해당한다.

식적의 치료방법은 토, 하, 소도, 보익으로 나뉘볼 수 있으나 대부분 소도법 위주로 활용되었다. 지련화위탕, 목향화위탕, 목향화체탕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하면, 식적은 섭취한 음식이 머물러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포괄하는 병증으로써, 잘못된 식생활과 소화기의 소화능력 저하로 발생한다. 소도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지련화위탕과 목향화위탕 등으로 활용하였다.

6) 脇肋痛

(1) 진료 횟수

1914년-1935년까지 1342회 진단.

(2) 유사 진단 병명

감모/(협륙통), 늑골통, 늑막통, 늑통, 복통/(협통), 복협

통, 어혈협통, 협늑통, 협동, 협륑통, 협요통, 협통, 협통, 협통 (늑막염), 협통 (수포성늑막염), 흉협통.

(3) 원인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외감류	상한, 상한열담, 상한유열
음식류	식적담, 식적담울, 주담, 주담응체, 주상담음
철정류	분노상간, 비애상간, 철정담울
기혈담울류	기울, 기울담, 기울담체, 기울담화, 담열, 담울, 담울기체, 담음, 담화, 열담, 울담, 울담폐열, 유음, 혈허담성, 혈허담열
오장류	간담노화, 간울, 간화, 심화승폐, 폐열, 폐열담
외상류	타상, 타상어혈

(4) 주요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상, 처방에 따른 병인
지경화담전	감모담울, 감위열, 기노담화, 기담, 기울, 기울담, 기울담만, 기울담음, 기울담체, 기울담화, 기울식적, 기체담화, 기허담음, 기허담체, 담열, 담울, 담울기체, 담음, 담체기허, 담화, 담화기울, 부박상어, 습담, 식담, 식적담, 식적담울, 식적담음, 식적담체, 열담, 울담, 주담, 주식상, 철정기울, 혈허담성
양혈화담전	담음, 방실상, 주담응체, 타박상어, 혈허담성
지경이진탕	간화, 기담, 기울, 기울담체, 기울담화, 기체, 기허담화, 담울, 담음, 담체, 담화, 담화, 식담, 식적담, 주식담, 폐열
시경청폐탕	상한열담, 상한, 상한유열, 열담, 폐열, 상한폐열, 폐열담화, 간울담화, 감모유열
화혈음	감모, 낙상어혈, 낙타상, 박상어혈, 질박상, 주락상, 타락, 타락상, 타상, 타상어혈
가미화담전	감한, 기울담, 기울담화, 담울, 담음, 담화, 식적담, 식적담음, 타박상어

(5) 접근 및 해제

협늑통은 양측 협부 혹은 일측 협부에 나타나는 통증과 팽만감을 지칭하는 병증이다. 청강 진료부상에 기재된 협늑통은, 단순한 통증은 포함하지 않으며, 체간내의 문제가 쌓여서 밖으로 드러난 통증처럼 심각한 기저 증상을 포함하는 협늑통만을 지칭한다.

협늑통을 일으키는 원인은 체간에서 말단부로 퍼져나가는 기혈의 순환이 저체되어 협늑부에 쌓임으로 인해 발생한다. 초기의 흐름 장애는 기체 혹은 기울담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진행되어 유형의 물질이 쌓인 경우에는 담울, 담음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오래되어 비정상적인

장부 기능을 유발할 때는 ‘화’가 생겼다고 표현하고 있다. 쌓여있는 비생리적인 구성물의 종류는 좌우의 통증 부위라든가 협늑통과 동반되는 제반 증상으로 구별한다.

협늑통의 치료는 쌓여있는 물질의 제거에 치중하였다. 지경화담전, 양혈화담전과 같이 담을 제거하는 처방이 대표적인 예이다. 오래되어 ‘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경청폐탕이나 화혈음을 활용하여 치료하였다.

종합하면, 협늑통은 내부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협부에 나타나는 통증과 팽만감을 지칭하는 병증으로 체간내의 장부 기능 실조로 기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한다. 지경화담전, 양혈화담전과 같이 쌓여있는 비생리적인 구성물을 제거하는 처방을 활용하여 치료하였다.

7) 虛勞

(1) 진료 횟수

1914년-1935년까지 1204회 진단.

(2) 유사 진단 병명

기허, 비위허손불사음식, 상한노역, 위기허탈, 허겁병, 허노, 허노수, 허로, 허로/(경적), 허로/(복통), 허로/(식적열), 허로/(신경쇠약), 허로/(조잡), 허로사지불인, 허로유상한, 허로천만, 허탈, 허탈병, 협음상한.

(3) 원인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외감류	서상기
노권류	내상노손, 내상노역, 노상, 노상기혈, 노상심비, 노손과도, 노신과도, 노역 급 상심과도, 노역과도, 노역상기, 방실과도, 심동과로
전신기혈허약류	소풍허상, 소풍허약, 기허담성, 기혈구허, 기혈대과, 기혈부족, 기혈약허, 기혈제손, 기혈허, 기혈허손, 쇠한, 양허, 영허, 영혈부족, 원양허손, 원양허탈, 음양구손, 음양구허, 음양제손, 음양허손, 진양허손, 진원부족, 진원허손, 진원허탈, 진음부족, 품기허, 혈고, 혈기양허, 혈허, 혈허담성
오장류	간신허손, 감수휴손, 금수휴손, 명문약허, 비신구로, 비신부족, 비신진화휴휴, 비신허, 비신허손, 비위허약, 비토불운, 비토허손, 비폐신허, 비폐허, 비폐허손, 사려상비, 상화동심, 수고화열, 신수부족, 신허, 심비폐삼경허손, 심비폐허, 심비허손, 심신과로, 심신구로, 심신불교, 심신허로, 심신허손, 자오불교, 중주불운, 폐비허, 폐신구허, 폐신부족, 폐신허, 폐신허손
부인류	산후허손, 자궁허손, 태원불교
기타	대병채후, 대병후

(4) 주요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상, 처방에 따른 병인
화정전	기혈양허, 내상, 내상노역 외감풍한, 내상노역외감풍, 내상방실 외감풍한, 내상원기 외감풍한, 내상정혈 외감풍한, 내외감상, 내외상, 내외상감, 대병후, 방로감도, 방로상, 방실감음, 방실감풍, 방실감풍한, 방실감한, 방실과도, 방실상, 방실상정, 방실상풍, 방실풍한, 외감풍습 내상방실, 외감풍한 내상방실, 외감풍한내상방실, 음양구손, 폐신구허, 풍한
가미화정전	기혈약허, 기혈허, 기혈허손, 내상노역 외감풍한, 내상방실 외감풍한, 내상방실외감서습, 내상방실외감풍향, 내상외감, 내상적혈 외감풍한, 내외감상, 내외상, 노역 급 상심과도, 방실감한, 외감풍한 내상방실, 음양구허
이음전	내상방실외감풍습, 내외감상, 내외상, 방실감풍, 방실감한, 방실상, 방휘상, 외감풍한 내상방실, 음병
가미대보탕	기혈양허, 기혈허손, 기혈휴손, 내외감상, 대병체후, 쇠로, 쇠한, 진원허손
가미리음전	내상방실 외감한사, 내외감상, 내외상, 방실감풍, 방실상, 방실후증, 방휘상, 외감풍한 내상방실

(5) 접근 및 해제

허로는 전신적인 혹은 국소적인 신체 기능 및 형질의 부족을 나타내는 ‘허’와 지나치게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써서 생긴 제반 증상을 나타내는 ‘로’를 합쳐서 지칭하는 병증이다. 몸이 말라가며 기운이 없고, 식사량이 줄며 열이 나면서 기침을 하는 등이 허로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하겠다.

허로를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이 결국 인체 음양기혈의 부족을 초래한다는 면은 동일하다. 인체 음양기혈의 부족을 초래하는 상황으로 청강진료부상에서 제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방실상과 노역 그리고 정서적 문제이다.

허로는 음양기혈의 부족을 고루 채워주는 방향으로 치료했으며, 여기에 사용된 처방은 화정전과 이음전이 대표적이다.

종합하면, 허로는 인체 기능의 부족과 지나친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증상을 지칭하는 병증으로써, 방실과도, 노역, 정서적 문제로 발생한다. 치료는 화정전, 이음전 등을 주요 처방으로 활용하였다.

8) 痞滿

(1) 진료 횟수

1914년-1935년까지 비적은 1065회 진단, 흉복비적은 1051회 진단, 비만은 150회 진단.

(2) 유사 진단 병명

감모(비적), 격만, 대변폐(비만), 비기, 비만, 비만(식궐), 숙식비기, 숙식비만, 위허비만, 중만, 중풍(비만), 허비, 협만, 흉만, 흉만(정충), 흉만변열, 흉복비만, 흉비(비만).

(3) 원인

분류기준	청강 진료부 상에 기재된 병인
음식류	숙식, 숙식담, 숙식담음, 숙식상위, 숙식적, 숙체, 식담, 식담우위, 식상, 식적, 식적기울, 식적담, 식적담음, 식적담음, 식적담화, 위약식적, 음식불화
칠정류	칠정소상
기혈담음류	기담, 기비, 기울, 기울담, 기울담체, 기울담화, 기울식담, 기적담, 담음, 담음장풍, 담음, 담음식적, 습담, 습열식담, 혈허담성
오장류	비위불화이약음식불화, 비위습열, 비위허손, 위강비약, 위약, 위약담음, 위열습담, 위한, 위허, 위허담성, 위허숙식, 중단불운, 중주불운

(4) 주요처방

처방명	청강 진료부상, 처방에 따른 병인
목향화위탕	기울담식, 불복수로, 숙식, 식담, 식상, 식적, 식적담음, 식적담음, 음식상위
목향보화탕	기울식적, 기적담, 숙식, 식적담, 식질, 위강비약, 위약비강, 음식상위, 중주불운
건위탕	기울위약, 비위허손, 숙식, 위약, 위허, 중주불운
지련화담전	기울, 담음, 담화, 식담, 중주불운
향사지출탕	기비, 식적, 식적담음, 위약담음, 위약식적, 음식불화, 중주불운
향사양비음	식담, 식상, 식적, 위약, 중주불운

(5) 접근 및 해제

비만은 상복부의 적체감 및 동통, 더부룩함, 그득함, 구역감 등을 호소하는 만성 소화 장애의 일종이다.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은 소화력을 약화시키는 인자라고 요약할 수 있다. 청강 진료부상에서 숙식, 습담, 식적담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원인들 모두 소화력을 약화시키는 인자로서 비만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또한 본래 소화력이 약한 경우에도 비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위약, 위허, 중주불운 등으로 그 원인을 표현하고 있다.

비만을 치료하는 주요처방은 목향화위탕과 목향보화탕을 들 수 있다. 모두 소화력을 도와주는 소도법을 활용하는 처방들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부족한 소화력을 보태주는 건위탕도 활용되고 있다.

종합하면, 비만은 적체감, 동통, 더부룩함, 그득함 등을 호소하는 만성 소화 장애의 일종으로써, 소화력을 약화시키는 숙식, 습담 등에 의해서 생기거나 기존의 소화력 저하에 의해서 생긴다. 비만을 치료하는 주요처방은 목향화위탕, 목향보화탕, 건위탕 등이 있다.

Ⅲ. 결 론

京城普春醫院治療患者統計表는 金永勳號 晴崗, 1882-1974)의 1914년부터 1935년까지 진료기록에 대한 통계를 직접 작성한 것이다. 년도별로 병증군에 따라 월별 남녀의 구분을 두어 세세하게 기록하였다. 총 59353건의 초진환자에 대한 기록인데 대략 매년 3000건 정도의 진료기록이며 월별로 추산하면 200여건의 진료환자에 대한 통계이다. 이 기록이 이만큼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진료부기록과 처방전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당시의 진료부와 처방전의 기록과 대조해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는 기록이다. 다만 동일환자의 재진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사료인 진료부와 처방전기록보다는 데이터의 수가 적다. 그리고 20년 동안 진행된 기록과정이기 때문에 초기기록과 후기의 기록의 상태가 일관되지 않아 다소 병명보정의 작업이 필요하긴 하였지만 가성조달중독, 노자온, 감갑창 같은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는 당시에도 드문 병증에 대한 기록 등은 현재 한의학질환명을 추적하는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李鐘馨 編, 『晴崗醫鑑』, 서울:成輔社, 1990.
2. 韓大熙 編, 『大漢韓醫師協會四十年史』, 서울:大漢韓醫師協會, 1989.
3. 鄭源熙 著, 『素軒鄭源熙遺稿集 解放後漢醫學 발자취』, 서울:玄凡社, 1988.
4.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http://jisik.kiom.re.kr/>>.